

국제 ODA 동향

(2009. 10)

ODA 토포픽

- | | [Page] |
|---|--------|
| <input type="checkbox"/> 남남협력/삼각협력과 원조효과 | [2] |
|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정의, 지원 현황 및 시사점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및 시사점 | [13] |
| ◆ 우리나라의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점검 및 시사점 정리 | |

ODA 단신

- | | |
|--|------|
| <input type="checkbox"/>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담(HLF4)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OECD 홍보팀 방한) | [25] |
| ◆ '09년 8월 OECD HLF-4 홍보팀과의 'HLF-4 개최 자문회의' 주요 결과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제13차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워크숍 개최 | [28] |
| ◆ '09년 10월에 개최된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워크숍의 주요 결과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박람회 개최 | [32] |
| ◆ '09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개최된 국제개발협력박람회의 주요 내용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2009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 [35] |
| ◆ '09년 10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 정리 | |

ODA 자료

- | | |
|---|------|
| <input type="checkbox"/>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현황 | [37] |
| ◆ 스웨덴의 ODA 운용 체제 및 원조 동향 분석 | |
| <input type="checkbox"/> 2008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의 주요내용 | [38] |
| ◆ '09년 OECD/DAC 앞으로 통보된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분석 | |

EDCF 소식

- | | |
|--|------|
| <input type="checkbox"/> 2009년 3/4분기 EDCF 소식 | [65] |
| ◆ '09년 3/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EDCF 동향 및 '09년 9월 말 현재 EDCF 업무 통계 | |

국내외 ODA 소식

- |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ODA 소식 | [77] |
| ◆ '09년 10월 국내외 ODA 소식 | |

ODA 토픽 1

남남협력/삼각협력과 원조효과

【요약】

- 아크라행동계획은 남남협력/삼각협력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
- 남남협력/삼각협력은 북남협력에 비해 수원국 Needs에 대한 적합성, 비용효과성, 지원의 신속성을 비롯한 비교우위 및 내정 비간섭주의 등으로 수원국에게 개발협력방식에 있어 보다 다양한 Options을 제공
- 과거 해외원조 수원을 통한 경제개발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신규 DAC회원국(예정)으로서 남남협력/삼각협력을 효과적인 원조공여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1. 논의 배경

- 2008년 9월, 가나에서 개최된 제3차 원조효과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에서는 파리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
- 아크라행동계획에서는 남남협력/삼각협력, Global fund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고
- 최근 멕시코에서 개최된 DAC회원국-비회원국간 정례협의(Policy Dialogue on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는 삼각협력과 원조효과를 주요 의제로 논의

- 2010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남남협력회의 준비를 위한 Task Team 운영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참여중이며, 2010년 1월엔 남남협력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
-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차기 원조효과 고위급포럼 개최국으로서 새로운 국제협력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남협력/삼각협력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제고 필요

2. 남남협력/삼각협력의 정의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 남남협력은 DAC회원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전통적 지원방식인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개발협력관계를 의미
- 남남협력은 현재 ODA로 계상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도국간 무역·투자의 급격한 성장, 상호 호혜적 이익을 바탕(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으로 한 평등성, 상대국 상황 및 needs에 대한 적합성(responsiveness), 신속한 절차(speed) 등으로 전통적인 북남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개발협력 메커니즘으로 관심 증가

□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 삼각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 또는 개발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간의 파트너십을 의미¹⁾

1) 삼자 개도국간의 개발협력도 삼각협력의 한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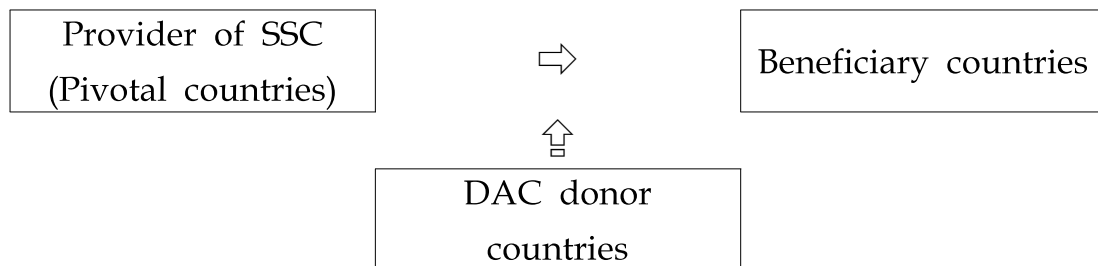
각 기구별 '삼각협력'에 대한 해석

- ▶ UN Development Programme : "a way of fostering development by leveraging the best features of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with assistance from developed countries"
- ▶ UN ECOSOC²⁾ :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interpreted as OECD/DAC donors or multilateral institutions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Southern governments to execute projects/programmes with the aim of assist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 ▶ CUTS³⁾ :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re aid is channelled through institutions in third countries for being applied to development projects in poor countries"

□ 삼각협력의 참여자

- 광의의 개념으로는 삼자구도의 모든 개발협력 수행방식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남남협력 공여국, 수원국 및 이를 지원하는 DAC 회원국으로 구성된 삼자구도로 한정

삼각협력의 구조



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3)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 Environment

3. 남남협력/삼각협력과 원조효과성

□ 배경

- 아크라 원조효과 고위급포럼의 Roundtable⁴⁾ 9 회의에서 새로운 개발 협력 파트너가 원조효과 의제에 참여하는 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의제가 논의

Roundtable 9(원조체계의 변화) 주요 논의 내용

- ▶ 최근 신흥 원조공여국 및 글로벌 펀드의 원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분산된 원조 방식에 따른 원조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 전통적 북남형태의 원조체제와 함께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의 원조체제 추진 필요

- 동 고위급포럼기간 중 남남협력은 수원국 특히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 MIC)들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남협력이 아크라행동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수원국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반영
 - 수원국이 개발협력에 적극적인 player로 참여
 - 현행 원조체제를 보다 평등한 방식의 원조체제로 변화

□ 남남협력/삼각협력과 원조효과규범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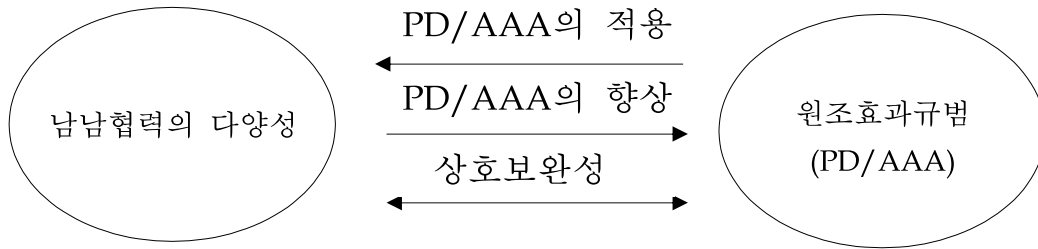
- 아크라행동계획에서는 남남협력과 원조효과 규범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표현

4) 2008년 아크라 원조효과 고위급포럼에서는 파리선언의 5대 중점 추진과제 및 4개의 추가 주제에 대한 집중 토의를 위해 roundtable 회의를 개최

: RT1 Ownership, RT2 Alignment, RT3 Harmonization, RT4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RT5 Mutual Accountability, RT6 The Role of CSO, RT7 Aid Effectiveness in situations of Fragility and Conflict, RT8 Enhancing Results by Applying the Paris Declaration at Sector Level, RT9 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을 남남협력에 적용
- 남남협력의 실행경험 등은 원조효과논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 북남협력과 상호보완

원조효과규범과의 관계



① PD/AAA의 적용(Adapting PD/AAA to SSC)

	적용내역	PD/AAA의 관련 조항
Ow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남협력 협의과정에서의 수원국 주인 의식 및 needs 반영은 남남협력 효과성의 핵심 · 남남협력은 수원국 시스템에 대한 학습 및 진단을 통해 수원국의 능력개발에 기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15 · PD 15 · AAA 14(b) · AAA 15(c) · AAA 23(c)
Al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개발 우선순위, 전략에 적합한 사업계획 및 실행 · 능력개발 지원은 남남협력의 핵심분야 · 수원국 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16 · AAA 14(a) · PD 24 · AAA 14(b),(c) · AAA 15(a),(d)
Harmo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남협력의 교훈은 남남협력 공여국 및 전통적 공여국과 공유 필요 · 남남협력의 비교우위를 인지한 수원국이 공여국들간 조정을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32 · PD 34, 35 · AAA 17(a)
Managing for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결과에 대한 원조재원관리는 남남협력 규모의 적정성 및 효과 개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45 · AAA 23(c) · AAA 24(a)
Mutual accoun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남협력 실행기관의 능력개발(조직·직원의 전문화 및 동기부여 등)은 원조 효과개선에 필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36 · AAA 14(a) · AAA 23(d)

② PD/AAA의 향상에 기여(Enriching PD/AAA with the practice and experiences of SSC)

	기여내역	PD/AAA의 관련 조항
수원국 상황에 대한 적합성	· 남남협력의 비교우위 : 수원국의 수요기반, 신속한 절차, 언어적·문화적 유사성, 비용효과성 등	· PD 24 · AAA 14(a),(b)
개발의제의 확장	· 남남협력의 성격상 수원국의 능력개발 기여도가 크며, 특히 경제위기, 기후 변화 대응능력 개발에도 기여	· AAA 14(a),(b)
공여국간 조정	· 남남협력의 주요 공여국이자 수원국인 중소득국의 개발협력경험은 원조조정 및 원조분업 개선에 기여 가능	· PD 34, 35 · AAA 17(a)
개발 파트너십 장려	· 남남협력의 핵심가치는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장려와 밀접하게 관련	· PD 50 · AAA 24(b) · AAA 31

③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with North-South cooperation)

	상보관계내역	PD/AAA의 관련 조항
남남협력의 비교우위성	· 수원국의 수요기반, 수원국 상황에의 적합성 등 남남협력의 비교우위는 북남협력을 보완	· PD 24 · AAA 14(a)
선택의 다양성 제공	· 특히, 능력개발 지원을 희망하는 수원국에게 북남협력식 기술협력외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 PD 24 · AAA 14(b)
삼각협력	· 북과 남이 각각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개발 분야에서 삼각협력은 남남협력과 북남협력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협력방식	· AAA 14(b)

4. 남남협력/삼각협력 지원현황

□ 남남협력

- 남남협력은 50여년전에 시작되어 '60~'70년대 UN내의 G-77⁵⁾에 의해 활성화되었으며, 1978년 "Buenos Aires Plan of Action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를 핵심정책문서로 채택

남남협력의 예시

- ▶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The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Islamic Development Bank', '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등의 설립('60~'70년대)
- ▶ 중국의 Tazara 철도(탄자니아-잠비아간) 건설 지원('60년대말)

- 2008년 ECOSOC의 'Trends in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동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18개 개도국⁶⁾과 3개의 지역다자기구⁷⁾들이 2006년 중 공여한 남남협력 규모는 95억불~121억불 수준(당해년도 전체 ODA의 약 8~10%에 해당)
- 남남협력 공여국들의 대규모 원조공여 약속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0년에는 그 규모가 약 1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6년 기준 남남협력 지원규모별 공여국 순위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순
- 대규모 예산지원방식이 일반적인 전통적 공여국과 달리 남남협력 공여국들은 주로 프로젝트 방식의 차관 또는 증여를 제공⁸⁾

5) Group of 77 : 1964.6.15, 개도국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UN에서의 집합적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결성한 77개 개도국들의 연합으로 현재는 회원국이 130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수단정부가 의장을 맡고 있음

6) 브라질, 중국, 인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터키, UAE,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튀니지

7) Arab Bank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Islamic Development Bank,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8) 인도의 경우, 주변국인 부탄, 네팔과 아프가니스탄에 예산지원방식의 원조도 제공

□ 삼각협력

- DAC회원국들이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흐름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데다, 개도국들로부터의 정보도 신뢰하기 어려워 현재 삼각협력 흐름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협력규모 중 상당 부분이 삼각협력흐름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최대 남남협력 공여국인 중국의 경우, 삼각협력 참여규모는 미미
- DAC회원국 중 16개국⁹⁾이 삼각협력 지원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일본의 경우, 삼각협력을 효과적인 원조방식으로 규정한 2003년 ODA헌장 채택이후 삼각협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중

삼각협력의 예시

- ▶ 'Haiti Food Security Project' : 아르헨티나가 지원금액의 70% 부담, 나머지 30%는 캐나다, 스페인 등이 부담
- ▶ 칠레의 니카라과내 소규모 가구 생산 개발사업에 대한 장기 기술 협력사업을 핀란드가 자금 지원
- ▶ 브라질은 DAC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아프리카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동티모르, 중남미 국가들의 예방접종, 학교급식, 삼림화 사업 등을 공동 지원

□ 지역적 분배현황

- 남남협력/삼각협력의 지역적 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지리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에는 국가간 무역 관계가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급부상

9)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스위스, EC

- 주요 남남협력 공여국들의 중점지원대상국(2006년 기준)
 - 인도 : 부탄(36%), 아프가니스탄(25%), 네팔(13%)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 태국 : 라오스(59.9%), 캄보디아(25.9%), 미얀마(6.9%)
 - 칠레 : 쿠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터키 : 키르키즈(17.6%), 아프가니스탄(9.0%), 파키스탄(8.8%)

-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부국인 앙골라,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개발 협력을 지원

5. 비교우위 및 문제점

□ 남남협력/삼각협력의 비교우위

- 적합성(Adaptability) :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경제·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남남협력 공여국이 수원국 Needs와 상황에 보다 적합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예산지원방식을 주로 지원하는 전통적 공여국들이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반면, 남남협력 공여국들은 기본적으로 비간섭 주의이며, 이를 수원국들이 선호
- 비용절감(Cost effectiveness) :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인건비, 체류비용, 여행경비 등이 남남협력 공여국인 개도국에서 보다 저렴하므로 남남협력/삼각협력 방식의 전문가 파견, 교육프로그램 등은 북남협력보다 비용효과적
- 북남협력에 대한 보완성(Complementarity) : 북남협력으로 원조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분야인 인프라, 생산분야, 범지역사업 (regional projects)에 대해 남남협력/삼각협력은 보완적 역할 가능

□ 남남협력/삼각협력의 문제점

- 통계체제 부재 : 남남협력/삼각협력 방식의 개발원조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제의 부재로 정확한 규모산정이 곤란
- Program Based Approach(PBA) 방식의 원조 확대 필요 : 대부분 프로젝트 지원, 기술협력 방식 위주의 현행 남남협력/삼각협력은 PBA방식의 지원확대를 권고하는 파리선언과 배치
- 참여자들간 협력체제 구축 필요 : 다수의 개발협력 참여자들로 인한 원조 조화 침해 및 거래비용 증가 우려

6. 시사점

□ DAC회원국으로서 새로운 협력방식 모색 요구

- 우리나라는 2010년 DAC가입을 앞두고, 기존의 양자간 협력과 더불어 DAC회원국으로서 삼각협력에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효과 제고 노력에 기여 가능
- 특히, 아시아지역은 개도국 및 신흥공여국간 남남협력/삼각협력 추진을 위한 기회가 타 지역에 비해 크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
- 최근 OECD/DAC 및 G-20 내에서 우리나라의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바, 남남협력/삼각협력은 우리나라의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포괄적 개발협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제 필요

- 최근 남남협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ODA정의 및 DAC통계시스템으로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 개발협력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북남협력과 남남협력/삼각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협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제 마련 필요

자 료 : 1) UNDP/Japan Partnership supporting South-South cooperation : Innovative triangular cooperation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DP(2004)
2)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2005)
3) Accra Agenda for Action, OECD(2008)
4) Trends in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UN ECOSOC(2008)
5) Triangular Cooperation and Aid Effectiveness, Talita Yamashiro Fordelone(2009)
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ECD(2009)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토포 1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및 시사점

【요약】

- 수원국 공공재정시스템(PFM)은 수원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수원국의 PFM 시스템 사용시 원조 일치성 제고,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능력 배양, 거래비용 절감, 국가신뢰도 향상 및 투자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 산출
-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수원국의 PFM 시스템 사용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목표치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PFM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확대도 필요
- 우리나라는 PBA 방식의 원조 확대, 원조의 중장기 예측성 강화를 통한 원조자금의 수원국 예산 반영 지원, PFM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 확대 노력 필요

1. 수원국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배경

- 전통적으로 많은 공여국들은 공여국의 시스템 사용을 수원국에게 권고하면서 직접적으로 원조 재원 흐름을 관리
 - 이는 수원국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오히려 수원국의 시스템 사용 능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초래
- 수원국의 시스템 사용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조 일치성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원조 효과 제고 가능
 -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에서는 공여국이 수원국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

- DAC은 파리선언에서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PFM)과 조달시스템 사용 점검을 위한 지표 (각각 5a 및 5b)를 수립하고 공여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
- 아크라행동계획(AAA)은 PFM, 구매, 감사,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환경 영향 평가 등에서 수원국의 제도와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어, 파리선언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수원국 시스템 사용을 촉구
- 수원국 시스템 활용은 궁극적으로 수원국으로 하여금 원조 재원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

2.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PFM)의 개념

□ 일반적 정의

- PFM은 일반적으로 수원국 예산 편성 과정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 전략설계, 중기지출구성, 연간예산수립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익관리, 조달, 회계, 감독 및 평가, 감사 등 관리 단계까지 모두 해당

□ 파리선언에서의 정의

- 파리선언에서는 수원국의 PFM 사용에 대해 “수원국의 일반 법률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정부의 관리 기능 하에서 사용되는 수원국의 기금관리시스템 사용¹⁰⁾”으로 정의

10)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p38

○ DAC은 공여국의 수원국 PFM 사용 이행 점검 시, 다음의 3가지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 예산 집행 : 공여국은 수원국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원조 자금 집행
- 2) 회계 보고 : 공여국은 별도의 회계 보고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수원국 절차를 따름
- 3) 회계 감사 : 공여국은 별도의 회계 감사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수원국 절차를 따름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

○ 원조 일치성(Alignment) 제고

-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원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공여국의 원조 사업이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더욱 부합 가능

○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능력 배양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공공재정관리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 이는 수원국의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를 가능케 하며, 이를 지속(sustainability of results)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통해 원조 효과 제고

○ 거래 비용 절감

- 공여국의 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 비용 절감

○ 수원국 PFM 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가 신뢰도 향상 및 민간 투자 촉진

3. 수원국 PFM 시스템의 사용 현황

가.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에서는 파리선언 Indicator 5a (수원국 PFM을 활용하는 원조유입액 및 공여국 비중) 및 Indicator 2a(수원국 PFM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통해 수원국의 PFM 시스템 현황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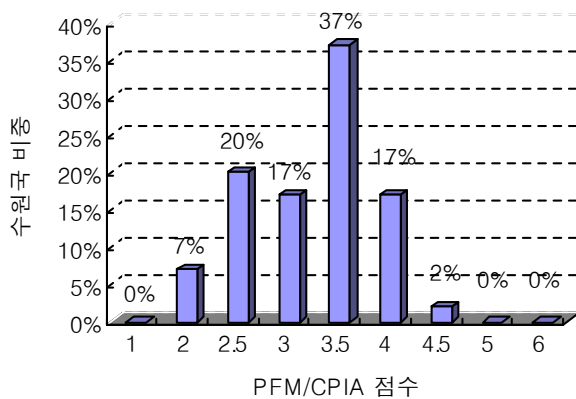
※ Indicator 2a(수원국 지표) : 수원국의 50%가 세계은행 CPIA11) 평가 중 '신뢰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제(PFM/CPIA)' 척도에서 최소 1등급(0.5점) 상향

※ Indicator 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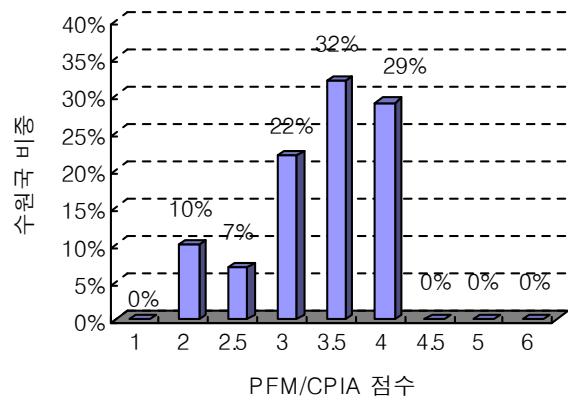
- a) 수원국 PFM을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비중의 2/3 (PFM/CPIA 점수 5 이상인 수원국) 또는 1/3(동 점수 3.5~4.5인 수원국) 축소 (수원국 지표)
- b) PFM/CPIA 점수 5이상인 수원국에 대해서는 모든 공여국이, 동 점수 3.5~4.5인 수원국에 대해서는 공여국의 90%가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 (공여국 지표)

○ Indicator 2a에 대한 서베이 결과, 2007년 PFM/CPIA 점수 4점 (moderately strong)을 받은 수원국은 1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나, 55개 수원국(서베이 참가국) 중 36%만이 2005년 이후 PFM 시스템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2005년 수원국 PFM 평가 점수



2007년 수원국 PFM 평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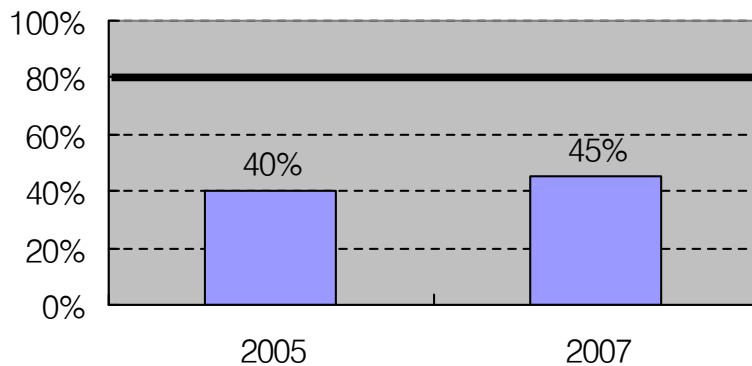
<자료 :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33p>

11)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 Assessment) :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시스템을 분석 평가하는 등급

- Indicator 5a에 대한 서베이 결과, 공여국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은 2005년 40%에서 2007년 4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 목표치인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

* 공여국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 = $\frac{\text{수원국의 예산집행, 회계보고, 회계감사 시스템 사용 원조의 평균 금액}}{\text{공공 부문으로 지출된 원조 금액}}$

공여국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



<자료 :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38p>

- 공여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베이에 참여한 21개 DAC 회원국(그리스 제외) 중 영국(77%), 캐나다(75%), 아일랜드(79%), 일본(62%) 등 11개국만이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이 50% 이상으로 평가됨
 - 다자기구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은 다자기구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임. UN(18%)이 가장 낮았으며, ADB(81%)가 가장 높게 평가
 -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PFM 시스템 사용률이 2005년 45%에서 2007년 10%로 크게 감소

Indicator 5a에 대한 주요 공여국 현황

(백만불)

국가	33개국 중 수원국수	정부 부문 지출액	PFM 시스템 사용 원조액			Indicator 5a ^{주)}	
			예산집행(a)	회계보고(b)	회계감사(c)	2005	2007 (a,b,c 평균)
일본	32	1,553	964	971	939	29%	62%
미국	31	2,767	94	110	77	10%	3%
영국	20	1,316	1,113	1,045	898	78%	77%
캐나다	24	582	438	449	418	42%	75%
아일랜드	6	189	155	153	140	89%	79%
프랑스	22	404	190	201	92	28%	40%
독일	31	883	308	392	366	36%	40%
한국	9	82	8	8	8	45%	10%
ADB	5	915	805	805	623	69%	81%
세계은행	32	5,878	3,061	2,937	3,580	42%	54%
UN	33	1,409	322	195	258	18%	18%
공여국 합계	-	24,658	11,894	10,878	10,541	39%	45%

주)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에 참가한 수원국 33개국 대상

<자료 :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Appendix B: Donor Data, Table B.5 참고>

- 원조 수단을 살펴보면, 수원국 PFM 시스템을 사용한 원조 중 57%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인 반면, 그 외 43%는 다른 원조 수단으로 제공된 원조(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등)로서, 예산지원의 원조 흐름이 전체 수원국 시스템 사용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예산지원은 그 특성상 자동적으로(by definition) 수원국 PFM 시스템을 활용하는 원조로 분류
 - 예산지원 외에 기타 원조 수단으로 제공된 원조 중 PFM 사용 원조는 20%에서 26%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수원국의 회계보고 및 감사 시스템 사용률이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임

나. 우리나라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 현황

- 33개 서베이 참가 수원국 중 2007년도 우리나라의 지원대상국인 14개국¹²⁾의 PFM/CPIA 점수를 살펴보면, 모두 3.0 이상으로 PFM 시스템이 양호한 수준(Intermediate)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동 국가들에 대한 PFM 시스템 사용률은 10%대로 현저히 낮은 수준
 - 이는 우리나라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 없고,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프로젝트 원조의 비중이 크기 때문
 - 베트남의 경우, 예산지원을 제외한 다른 ODA 자금은 중앙예산을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음 (현지 EDCF 주재원 조사 결과)
- 수원국의 PFM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조 자금이 수원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나, 2007년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 중 개도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자금의 비중은 34%로 서베이 참여 공여국/기관의 평균(48%)보다 낮은 수준
 -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원조 자금의 흐름이 수원국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역시 부재한 상황
 - 우리 원조 자금이 수원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가 ODA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원국에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

12)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페루, 필리핀, 탄자니아, 베트남이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07년 CPIA 점수는 이용 불가(Not available)

다. PFM 관련 기술협력 지원 현황

□ DAC 회원국은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기구 중에서는 EC가 가장 활발하게 PFM 관련 기술협력을 제공

※ DAC의 PFM 관련 TC지원(승인, 백만불) : 116('05) → 147('06) → 274('07)

○ DAC 회원국 중 미국이 44.18백만불('05~07년 평균 승인액)로 가장 지원이 많았고, 영국 39.02백만불, 오스트리아 36.39백만불, 캐나다 14.99백만불 순

- DAC은 전체 TC('05~07년 평균 22,102백만불) 승인액의 약 0.8%를 PFM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가 3.9%로 DAC 회원국 중 PFM 지원 TC 비중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는 전체 기술협력 대비 PFM 관련 지원 비중은 0.3% 수준

주요 공여국의 PFM 관련 기술협력 지원 현황

(승인, 백만불)

국가	PFM ^{주)} 관련 TC				TC 전체(b) (3년평균)	PFM지원 비중(a/b)
	2005	2006	2007	3년 평균(a)		
미국	23.98	65.62	42.95	44.18	7,335.29	0.6%
영국	28.48	18.09	70.48	39.02	2,671.70	1.5%
오스트리아	15.06	7.80	86.32	36.39	921.44	3.9%
캐나다	6.46	16.02	22.48	14.99	791.03	1.9%
네덜란드	9.47	16.13	8.36	11.32	398.13	2.8%
독일	8.88	3.06	15.45	9.13	2,911.78	0.3%
프랑스	14.95	0.37	3.08	6.13	2,399.03	0.3%
한국	0.42	0.22	0.55	0.39	140.59	0.3%
DAC 합계	116.19	146.92	274.00	179.04	22,105.20	0.8%

<자료 :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주) DAC의 분야별 분류항목 중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분야코드 15120)"에 해당하는 원조

□ 우리나라는 전체 기술협력 중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PFM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DAC 평균(0.8%)에 미달

- PFM 관련 기술협력 중에는 KOICA에서 실시하는 Training Program이 가장 많으며, 기타 기관들이 실시하는 기술협력은 거의 없음
- 수원국 및 다른 공여국들과 공동으로 수원국 PFM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수원국 시스템이 국제적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베트남 내 공여국 협의체인 6 Bank Group(세계은행, ADB, AFD, JICA, KfW, EDCF) 회원국과 함께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 하에 베트남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
 - EDCF는 AFD와 함께 베트남의 재정관리 및 지출 촉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해 연구 진행

4. 시사점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가능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은 수원국의 원조자금 및 다른 공공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기여
 - 이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원국의 재원흐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은 2010년 파리선언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적 과제

-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DAC은 2010년 파리선언 목표달성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하나가 수원국 시스템 사용에 대한 권고
 - 수원국 PFM 시스템을 사용하는 원조는 45%로 집계되었으며,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은 2005년 이후 단지 4~5%p 증가에 그침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국 시스템 사용 및 강화를 위한 노력 촉진을 권고

□ 우리나라의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 확대 노력 필요

- 우리나라는 예산지원이 없고 프로젝트 원조의 비중이 높아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이 낮은 편
- 수원국 PFM 시스템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기반 원조(Programme Based Approach, PBA)* 확대 필요

* 프로그램 기반 원조(PBA)

수원국의 개발전략 또는 수원국이 수립한 특정 프로그램(예, '금융부문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공여국들이 공동으로 예산지원(budget support), 프로젝트형 원조, 공동 기금(pooled arrangements and trust funds) 등을 공여하는 것으로, 아래 4가지 기준 충족 필요

- i) 수원국이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리더십 보유
 - ii) 단일한 종합계획·예산 보유
 - iii) 공여국 공동의 절차 적용
 - iv) 수원국 시스템 활용
- 수원국의 Financial Sector Reform Program에 참여할 경우, 은행법령 개정 등 정책관련 Sub-project를 지원하게 되면, 금융전산화 등 하드웨어 부문에 국내산업 진출 유도 가능

- 프로젝트 원조 지원시 수원국이 원조 자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조 재원 흐름의 중장기 예측성 강화
 - EDCF의 경우 17개 중점지원국 전체에 대해 F/A(Framework Arrangement) 체결 확대를 통해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 F/A 기 체결국가 : 베트남, 인니, 필리핀, 우즈벡, 스리랑카, 파키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수원국 PFM 시스템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지원 확대
 - 공공재정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내 부처/기관들을 중심으로 수원국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을 확대
 -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통한 자문 지원 가능

붙임 : '07~'08년 우리나라의 수원국 PFM 지원 기술협력 사업 목록

자료 : 1)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 2008
2) Managing Development Resources: The Use of Country Systems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OECD 2009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07~'08년 우리나라의 수원국 PFM 지원 기술협력 사업 목록

(천미불)

연도	사업명	수원국	사업 내용	승인액	지출액
2007	Training Program	베트남	Fiscal Management and Reform	58	58
	Training Program	베트남	Fiscal Management and Reform (Advanced)	78	78
	Training Program	몽골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 Mongolian Officials	83	83
2008	Training Program	필리핀	Fiscal & Financial Policy Enhancement Program	72	72
	Training Program	캄보디아	General Taxation Management	67	67
	Training Program	양자간 미배분	Advanced Tax Administration	93	93
	Training Program	우즈베키스탄	Advanced Tax Administration	58	58
	Cambodia SNEC Capacity Building Program	캄보디아	The objective of this workshop is to disseminate Knowledge and knowhow on Korea's fiscal system and reform to the Cambodia's officials.	16	16
	Seminar on Financial Development in ASEAN & Korea	베트남	to promote understanding on financial systems in ASEAN countries and Korea through lecture, presentation, discussion and field-trip, and eventually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s by building strong network between ASEAN official	31	31
		태국		31	31
		필리핀		25	25
		미얀마		25	25
		말레이시아		6	6
		몽골		31	31
		라오스		31	31
		인도네시아		31	31
캄보디아		31		31	

ODA 단신 1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HLF-4) 개최 자문회의 - OECD HLF-4 홍보팀 방한 -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 개최 준비
(OECD HLF-4 홍보팀 방한)
- 회의 일시 : 8. 18(화) 14:00, 외교통상부
- 참가자
 - OECD HLF-4 홍보팀 : Brenda Killen(개발협력국 원조효과과장), Christine Graves(홍보담당관), Steffen Beitz(OECD DevCom 담당관), Helen Fisher(OECD 홍보국 미디어 담당관)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 외교통상부(개발정책과), 수출입은행, KOICA 등
유관기관 담당자 30여명

2. 주요 논의 내용

- OECD HLF-4 홍보팀(이하 홍보팀)의 홍보전략 수립계획 발표
 - 홍보팀의 이번 방한 목적은 HLF-4 준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HLF-4의 전반적 홍보 방향을 수립하기 위함
 - 홍보팀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DAC, 원조효과작업반, 시민사회, NGO, 타 공여국 등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HLF-4 준비를 위해 먼저 원조 모범사례(Stories), HLF-4의 key audience, 관련 국가/기관 간 업무 분담, 자원 활용, 스케줄(Timeline), 주요 문헌(document) 준비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홍보팀은 HLF-4가 수원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을 수원국에게 소개하기를 희망

□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소개

- 홍보팀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은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대표적인 good practice로 평가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개발경험 소개를 희망
-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EDCF)은 OECD 홍보팀과의 개별 면담('09. 8. 19, 수출입은행)시, 동 주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유·무상 통합국가지원전략(통합 CAS) 수립, EDCF의 베트남 Six Bank 그룹 참여, MDB와의 협조융자 사례를 소개
 - KSP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기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컨설팅을 제공
 -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유·무상 국가지원전략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CAS가 2009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며, '1 country - 1 strategy'를 통한 원조효과 제고 효과 기대
 - EDCF는 베트남에서 세계은행, AFD, KfW, ADB, JICA 등 5개 공여기관과 함께 2007년 베트남 Six-Bank Initiative에 참여하면서, 사업 발굴, 제도 정비, 원조 효과성 제고 논의 등을 공동으로 수행
 - ※ 현재 EDCF는 AFD와 함께 베트남의 원조 집행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되어 회원국간 검토 과정 중에 있음
 - EDCF는 AfDB, ADB 등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해 MDB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 공여기관간 원조 조화 노력에 동참

□ HLF-4 개최 관련 스케줄 협의

- 홍보팀은 OECD에서 계획한 HLF-4 스케줄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함

※ HLF-4 스케줄

- '09. 8월 : HLF-4 홍보전략에 관한 한-OECD간 공동 이니셔티브 발족
- '09. 하반기 : 전략, 디자인 캠페인 수립을 위한 외부 파트너 선정
- '09년말 : 양자 및 다자 공여국(기관), 원조효과작업반, 수원국 등 초청 및 운영위원회 발족
- '10~11 : 캠페인 수행
- '11. 11월말 : HLF-4 개최

목차보기

ODA 단신 2

『제13차 EDCF 개도국 공무원 워크숍』 개최

1. 워크숍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제13차 EDCF 개도국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개국의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EDCF 소개 및 지원사업 협의를 실시
 - EDCF 개도국 공무원 워크숍은 EDCF 차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수원국의 이해 증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실시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
 - 2009. 9. 20(일) ~ 26(토) 7일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연수원 등에서 강의 연수, 실무자들과의 업무협의, 한국의 경제발전 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 실시 (붙임1)
 - 지원사업 현안협의, 신규사업 발굴,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업무 협의 실시
 - 초청 대상국 및 대상자는 20개국 20명으로, 각 국가별 차관도입 책임자 1명씩 초청

지역별 초청국가 현황

지 역	국 가
아시아 (10)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니,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라오스, 네팔
중동·아프리카 (6)	예멘, 세네갈, 모잠비크, 카메룬, 요르단, 에티오피아
중남미·CIS (4)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2. 워크숍 주요 내용

□ EDCF 차관의 지원 분야, 사업개발지원제도 및 절차 등 설명

○ EDCF 차관지원 정책,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국가별 진행사업 주요 현안 협의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애로사항, 문제점 파악 및 향후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협조사항 등 논의

□ 신규 사업 협의

○ 참가국의 경제개발 사업 중 EDCF 차관지원 가능사업 확인 후 원활한 사업 진행 협의

3. 주요 성과

□ EDCF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

○ 동 워크숍에서는 EDCF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개도국 대표들 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EDCF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 개발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향후 신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

□ EDCF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워크숍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친 개도국 대표자들과 실무자들 간 업무 협의와 미팅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개도국의 개발 동기 유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개도국들의 EDCF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발전된 산업현장과 도시견학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붙 임 : EDCF 개도국 공무원 워크숍 진행 일정

작 성 : 한 경 목, kmhan@koreaexim.go.kr

정 리 : 예 동 균, 1906@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EDCF 개도국 공무원 워크숍 진행 일정

일시	구분	연수내용
9. 21 (월)	개회식	
	실무 강의	· EDCF 제도 소개 · 제도일반, 구매제도, 협조용자, 원조효과성
	간담회	· 연수생, 당행 직원간 업무협의
9. 22 (화)	실무 강의	· 원조 효과성
	정책 강의	· 한국의 ODA 정책 및 방향
	교양 강의	· 한국 문화의 이해
	Country Presentation	· 수원국의 차관도입정책 및 차관도입관련 애로사항 등 발표
	업무 협의	
9. 23 (수)	산업 시찰	· 현대제철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9. 24 (목)	산업 시찰	· ED ·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운영센터 · 시화조력발전소
	문화 체험	·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9. 25 (금)	문화 체험	· 도시 견학(서울)

ODA 단신 3

이화여자대학교 『2009 국제 개발협력 박람회』 개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제개발협력박람회
- 행사목표 : 개발협력기관들의 홍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강화
- 일시 : '09. 9. 29(화) 10:00~17: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Ewha Campus Complex)
-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 후원 : KOICA
- 참가단체 : EDCF, KOICA, NGO(지구촌나눔운동,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등 20개

2. 개최 배경

- 우리나라 ODA 체제의 선진화 및 국제개발협력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수
 -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및 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획
- 우리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지도강화 및 우리나라의 다양한 개발협력분야 관계자들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동 박람회를 개최

3. 주요 내용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홍보

- 우리나라 대외원조집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하여 홍보관을 설치, 기관 소개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 홍보

※EDCF 홍보관

- 방문인원 : 200여명(일반인 및 대학(원)생)
- 전시내용 : 사진패널, 현수막, EDCF 홍보 책자, 홍보물품
- 소개내용 : EDCF 개요 및 업무현황, 우리나라 ODA에서 EDCF의 역할, EDCF와 수은의 관계 등

□ 개발 NGO 전시관 설치

- “빈곤, 보건, 교육, 거버넌스, 환경, 인권, 평화” 주제별로 관련 단체 부스를 설치, 이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 홍보 부스와는 별도로 사진전을 개최하여 관람객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관심 유도

□ 국제개발협력 Roundtable 토론 개최

- 일반인 및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들과 약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개발협력에 관한 궁금증 해소 및 각 원조 기관들의 역할 및 비전을 이해

※국제개발협력 Roundtable

- 참가단체 : 수출입은행(나기환 경협제도팀장), KOICA(나현 민간협력팀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임은미 교수), 월드비전(국제개발팀 이창섭 간사)
- 참석인원 : 150여명(일반인, 중·고·대학(원)생)
- 토론내용 : ODA관련 예산 확대, 지원대상국가 선정 방식, NGO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인프라 구축 후 유지·보수 문제, 원조효과성 등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국내 최초로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열린 동 박람회는 일반인·대학(원)생 및 100여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이들의 높은 관심 및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동 박람회를 통해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각기 다른 원조기관들이 빈곤감소와 세계평화라는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갖고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
- 동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매년 국제개발협력 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작 성 : 조 은 진, ejcho@koreaexim.go.kr

정 리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4

2009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1.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 개요

- 일시 : 2009. 9. 24 ~ 2009. 9. 25
- 장소 : 미국 피츠버그
- 참가국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EU의장국) 등 G20 회원국 및 UN, IMF, WB, WTO, FSB 등 국제기구

2. 개발협력 관련 주요 합의 사항

- 식량안보 (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 라퀼라에서 선언된 '식량안보에 관한 이니셔티브' 및 '세계 농업 및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및 과도한 가격변동성 문제 해결 위한 노력 지지
 - 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 최빈국의 농촌 개발을 위해 향후 3년간 200억불을 지원키로 합의(L'Aquila Food Security Initiative)
 - 세계은행, 원조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다자 신탁기금(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 조성 촉구
 - 식량 자체를 지원하던 이전의 지원 방식에서 식량 생산 증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건설 노력 지지 확대로 방향 전환

□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 중소기업 및 빈곤층 접근성을 높인, Branchless banking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 외에도 G20 금융포괄전문가집단(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 Group)을 발족 예정

□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

- 회원국에 배분된 SDR(특별인출권)의 일부를 IMF에 용자하는 방식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저리의 양허성 대출 재원 확대
 - 금년 9월, IMF는 보유 금 403t(약 130억 달러) 매각을 통한 중기적 양허성 차관 제공 능력 확보

3. 기타 주요 합의 사항

- 20개 경제대국의 국가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해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의 내년도 개최지로 우리나라를 결정
-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피츠버그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신흥국 최초로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
- 그 외에도 경제위기 출구 전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IMF 쿼터 개정, 국제 금융기구 개편, 국제 금융규제체계 강화,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무역, 고용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

작 성 : 김 기 혜, 1888@koreaexim.go.kr

ODA 자료 1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 체제와 현황

1. 스웨덴 개발협력의 발전 과정

- 스웨덴은 1965년 DAC에 가입한 23개 DAC 회원국(EC 포함) 중 하나로 '08년(잠정치) 현재 47억 3천만불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으며, ODA/GNI 비율 0.98%인 주요 공여국임
- 스웨덴은 1962년 스웨덴 개발협력의 목표를 빈곤 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명시한 정부 법안을 승인하였고, 2003년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법안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오늘날 스웨덴 개발협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
 - 대외원조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정책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지닌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동 법안은 DAC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최초의 통합된 개발 정책이라는 점에 의의
- 스웨덴은 원조의 질적 수준 및 효율성 제고, 빈곤 감축에 대한 기여 확대 및 MDG 달성을 위해 원조 체제 개혁을 단행
 - 체제 관련 개혁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 인력 확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정책설정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외교부 산하에 국제개발협력부(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신설
 - 원조 제공기관 간 조정 강화 및 원조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2008년 국제개발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의 내부 구조 개편

- 2006년 스웨덴 개발평가기구(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 SADEV)를 신설하여, SI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감시 역할 수행
- 정책 관련 개혁
 - 지원대상국가 및 국제기구의 수를 감축하여 지원 규모의 내실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 및 원조의 질 향상
 - 원조 제공기관 간 조정 강화 및 원조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의 구축
 -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 중심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강조
 - 환경 및 기후변화, 역량개발, 인도주의, 수원국내 민주주의 제고, 성 평등 등의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개발협력의 효율적 관리 및 국내외 시민 사회와의 협력 증진
 - EU 의장국으로서 동유럽 국가들의 EU 편입을 위해 동유럽지역에의 원조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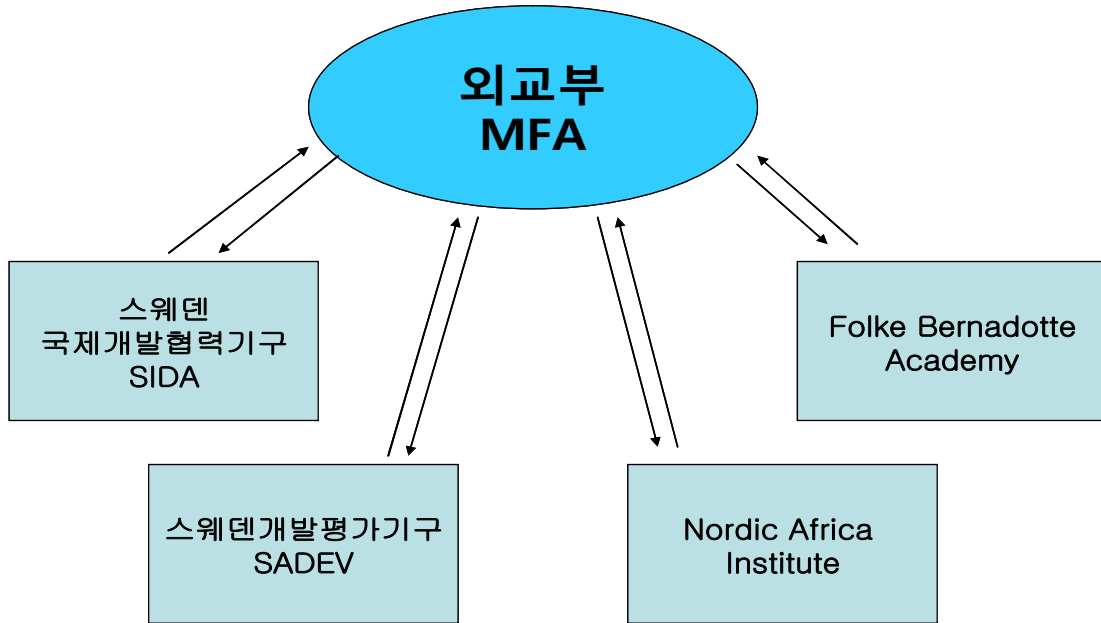
2. 現 스웨덴 ODA 운용체제 및 조직

가. ODA 운용체제

- 2006년 국제개발협력부의 신설 이래로 외교부가 국제개발원조와 관련된 4개의 기관(SIDA, 스웨덴 개발평가기구(SADEV), Folke Bernadotte Academy, Nordic Africa Institute)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부(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는 개발원조 정책 및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부처로서, 양자간 원조 일부와 다자간 원조 관련 업무를 담당

- SIDA는 1995년 설립된 스웨덴의 원조 집행 기관으로서, 양자간 원조의 80% 이상, 다자간 원조 중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간 원조 (multi-bi flow)를 전달

외교부 책임 하의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



-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스웨덴의 개발협력 예산 책정시 외교부, 의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 중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IMF, EBRD 등)에 대한 지원 및 부채 관련 사항(debt issues)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 기관임
- 스웨덴은 외교부와 SIDA간 업무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반면,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
- SIDA는 외교부 대사관에 개발협력을 위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하고, 대사관은 다시 SIDA의 국가 담당 director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중적 구조임

나. 주요 조직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 조직 체계

- 외교부는 각각의 장관급(minister) 수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외무역부(Foreign Trade), 외교부(Foreign Affairs), 국제개발협력부(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의 세 개 부처로 구성

* 現 외교부 내 국제개발협력부 장관은 Gunilla Carlsson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스웨덴 의회(Riksdag) 의원 출신

- 국제개발협력부는 다음의 세 팀(Unit)으로 구성

(1) 다자개발협력팀(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MU)

(2) 개발협력 관리 및 방법팀(Management and Methods in Development Cooperation, USTYR)

(3) 개발정책팀(Development Policy, UP) : 2006년 신설, 새로운 협력정책, 개발협력 정책일관성을 담당

○ 조직 기능

- SIDA를 비롯한 4개의 개발 원조 기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 및 기관 간 조정 기능 담당
- 양자간 원조의 일부 및 다자간 원조(Core contribution)의 대부분을 담당
- 개발원조 정책 설정
- 정책일관성 부문 담당

□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조직 체계

- SIDA에는 약 9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3 이상이 본부(스톡홀름 위치)에서 근무. 최근에는 더 많은 직원을 현장 사무소에 배치시킴으로써 권한 분산을 시도

* 2008년 기준 약 30%의 직원이 현장에 배치

- SIDA는 2008년 정책(policy), 운영(operation), 관리(management) 등 세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한 조직 개편을 실시

(1) **정책(Policy)본부** : 국제적 회담(global dialogue) 및 합의(Consensus) 도출, 지식 개발 및 정책 제언(Advice), 정책의 질적 보증 및 경쟁력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5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됨

- Democracy,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 Economic Opportunities
- Knowledge,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 Peace and Security

(2) **운용(Operation)본부**: 개발협력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며, 4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

- Long-term Programme Cooperation
- Conflict and Post-Conflict Cooperation
- Reform Cooperation in Europe
- Development Partnerships

(3) **관리(Management)본부** : 나머지 관련 기관과의 기능 조정 및 계획을 담당하며, 7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

- SIDA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directors)들로 구성된 전략적 관리그룹(Strategic Management Group) 및 SIDA의 관리팀에서 최고 상급자(most senior members)들로 구성된 운영 리더십 그룹(Operational Leadership Group)

을 신설

- 또한 SIDA는 기존의 이사회를 대체하여 자문회(Advisory Council)를 구성하였으며, 자문회는 SIDA의 활동과 예산에 대한 승인, 감시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지님

○ 조직의 기능

- SIDA는 외교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전담하는 원조 집행 기관으로, 스웨덴 양자간 원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기구를 통한 양자간 원조(multi-bi contribution)을 담당
- SIDA는 스웨덴 원조 평가기관인 SADEV와 연계하여 자체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

□ SADEV(Swedish Agency for Development Evaluation)

- 2006년 스웨덴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서 양자간 원조 및 다자간 원조를 모두 포함한 스웨덴의 개발협력에 대한 총체적인 부문에 대한 평가가 목적
- 단, SIDA의 자체적인 평가 기능과의 협력 및 충돌 문제가 존재하고,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 * 현재 SADEV에는 2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17명이 전문적인 평가사
- DAC은 Peer review(2009)에서 SADEV의 자체적 평가의 독립성 및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SADEV의 평가사항에 대한 SIDA 및 기타 원조기관들과의 피드백이 필요함을 권고

□ Nordic Africa Institute

- AEGIS(Network of African studies centres in Europe)의 일부로서 1962년 북유럽계 국가들을 위한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 문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북유럽계 국가들의 공동출자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주로 스웨덴 외교부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 Folke Bernadotte Academy(FBA)

- 외교부 자문 기관이자 기타 기관들과 기타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플랫폼 역할 수행

□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 스웨덴 감사원으로서 개발협력분야에 대해서는 SIDA의 업무 현황을 SADEV와 함께 평가, 감사하는 역할 수행

3. 스웨덴의 ODA 전략

가. 양자간 원조

□ 프로그램 원조의 비중 확대

- 스웨덴은 2005년 개발협력 전략(cooperation strategies)을 조직화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바,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로그램 원조에 대한 개괄적 윤곽을 제시
- SIDA는 2008년 프로그램 기반 원조를 위한 가이드(Guidance for Programme Based Approaches)를 통해 SIDA의 모든 개발협력을 프로그램 원조로 전환시킬 계획을 발표
- 스웨덴 양자간 원조의 절반 이상이 프로젝트 원조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원조 형태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까지는 적절한 교육 및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지원대상국가 축소를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 스웨덴은 양자간 원조의 지원 대상국가를 2011년까지 66개국에서 33개국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양자간 개발협력 강화, 분쟁 국가 지원, 동유럽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 대상국가를 선정

스웨덴 양자간 원조 지원대상국가 33개국

구 분	국 가
양자 개발협력 강화(12)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케냐, 말리, 모잠비크,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볼리비아
분쟁 중, 분쟁 이후 국가(12)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이라크, 가자지구, 콜롬비아, 과테말라
동유럽 지역 국가(9)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루지야, 코소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출처 : MFA 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sb/d/2059/m/header>

□ 우선 지원분야 선정

- 스웨덴은 2008년 개발협력의 다음의 세 가지 우선 지원분야를 선정, 앞으로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1) 민주주의와 인권
 - 2) 환경과 기후변화
 - 3) 성평등 및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나. 다자간 원조

- 국제기구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의 연관성(relevance)과 효율성(effectiveness)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지원을 결정
 - 연관성 : 국제기구의 임무가 스웨덴 원조 목표와 적합해야 함
 - 효율성 : 국제기구의 지원 대상이 스웨덴 원조 목표와 부합하고, 국제기구의 원조 활동이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조 관련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부는 "Swedish Assessment of Multilateral Organisations 2009"를 발표하였는바,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의 지원 결정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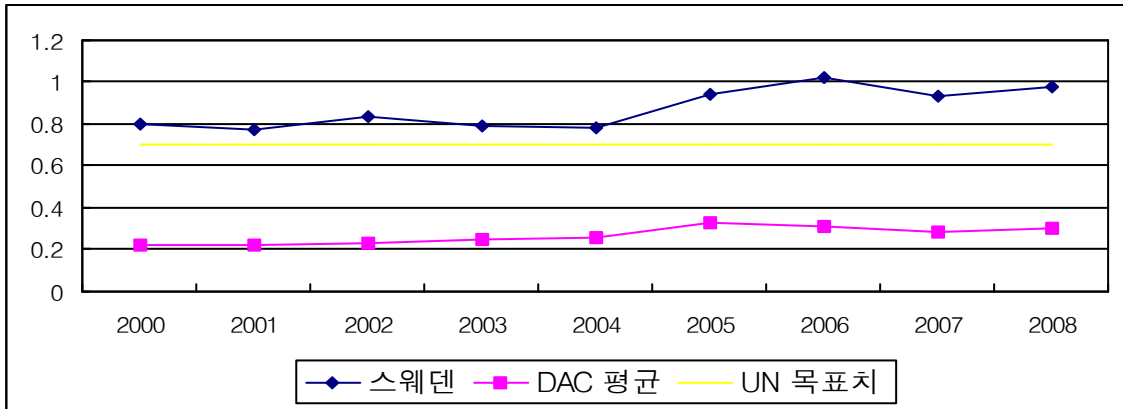
- 다자간 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간 원조(multi-bi)의 상호 보완성 요구
 - 다자간 원조(core contribution)와 multi-bi 원조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SIDA간의 명확한 업무분업을 통해 상호 보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2005년 "Management's Report"는 외교부가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SIDA가 운용을 담당할 것을 권고

4. 원조 동향 통계 분석

가. 전반적인 원조 규모

- 스웨덴은 2008년(잠정치) 순지출 기준 47억 3천만불의 ODA를 공여하여, 22개 DAC 회원국 중 8위의 원조 규모를 가진 주요 원조 공여국이며, ODA/GNI 비율은 0.98%로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음

ODA/GNI 비율 추이



- 스웨덴의 개발협력 예산은 '08년 39억불에서 '09년 43억불로 증가한 반면 '10년 예산은 38억불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스웨덴의 ODA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동 예산은 동유럽에 대한 협력 개혁(cooperation reform)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DAC에는 ODA로 보고되지 않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6.5 백만불도 포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예산(2008~2010)¹⁾

(백만불)

	2008	2009	2010(예상)
국제개발협력(a)	3,751.01	4,058.02	3,645.97
개발원조	3,608.75	3,913.08	3,496.33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 SIDA	125.91	128.39	132.12
Nordic Africa Institute	2.05	2.08	2.15
Folke Bernadotte Academy	5.82	5.93	6.72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5.67	5.67	5.67
스웨덴개발평가기구 SADEV	2.83	2.87	2.98
동유럽 재건 협력 ²⁾ (b)	172.67	206.63	181.03
합 계(a+b)	3,923.69	4,264.65	3,827.00

주 : 1) 2009. 10. 29자 금융감독원의 미화 환산율(1SEK= 0.14163873USD) 적용

2)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예산 포함

출처 : 1) Fact Sheet on the Swedish Government's Budget Bill for 2009

2)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www.riskdagen.se

나. 양자간 ODA 현황

[원조 형태별 현황]

- '07년 스웨덴은 전체 ODA의 68%인 29.3억불을 양자간 원조로 공여하고 있으며, 이 중 무상원조(28.4억불)의 비율은 약 97.6% 정도로 무상원조의 비중이 매우 큼
 - 스웨덴의 유상원조 비중은 2.4%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SIDA의 차관 및 외교부의 지분 취득(Equity Acquisition)이 해당
- 프로젝트 원조는 스웨덴 양자간 원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원조는 '05년 SIDA 예산의 11.4%에서 '07년 13.6%로 다소 증가
 - 2008년 SIDA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에 대한 가이드(Guidance on Programme -Based Approaches)를 통해 프로그램 원조 비중을 확대시키기로 하였는바, 앞으로 프로그램 원조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역별, 소득그룹별 현황]

- 스웨덴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공여하고 있는바, '07년 전체 양자간 원조(지역 미배분 제외)의 50.4%에 해당하는 9억불(순지출 기준)을 동 지역에 배분

'07년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배분 현황

(백만불, %)

지역		규모	비중(%)
아프리카 (a)	사하라 이북	5.50	0.3
	사하라 이남	925.88	50.4
	아프리카 미배분	69.37	3.8
아메리카 (b)		203.05	11.0
아시아 (c)		463.18	25.2
유럽 (d)		170.62	9.3
오세아니아 (e)		0.38	0.0
지역별 배분 가능 (f=a+b+c+d+e)		1,837.98	100
지역 미배분 (g)		1,094.25	-
합계(h=f+g)		2,932.23	-

- '07년 SIDA의 주요 지원대상국 중 7개 국가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탄자니아, 모잠비크, 카메룬, 수단, 우간다, 잠비아, 케냐)로서, '07년 기준 가장 지원비중이 큰 수원국은 탄자니아로 107.76백만불 규모의 ODA를 수원

스웨덴의 주요 수원국 현황 (1~10위)

(순지출 기준, 백만불)

순위	국가	금액
1	탄자니아	107.76
2	모잠비크	103.57
3	카메룬	73.64
4	수단	68.11
5	우간다	56.55
6	아프가니스탄	56.15
7	팔레스타인	54.33
8	잠비아	53.69
9	베트남	47.03
10	케냐	45.51
1~10위 합계		666.34

- 스웨덴은 현재 67개 지원 대상국을 2011년까지 아프리카, 동유럽, 분쟁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33개국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특히 동유럽 지역을 EU로 포섭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동유럽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계획
- 현재 스웨덴의 代동유럽 원조는 양자간 원조(지역 미배분 제외)의 9% 수준인 170.62백만불이며, 앞으로 양자간 원조 지원대상국 집중화 계획에 따라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07년 소득그룹별로는 최빈국(LDC)에 양자간 원조(소득 미배분 제외)의 49%를 지원하고 있으며, 33%를 하위중소득국에 지원

'07년 소득그룹별 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불)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중 소득국	상위중 소득국	배분가 능원조	소득 미배분	합계
금액 (백만불)	748.50	164.90	507.17	103.37	1,523.94	1,408.29	2,932.23
비중(%)	49.1	10.8	33.3	6.8	100	-	-

[분야별 현황]

- '07년 양자간 원조(분야 미배분 제외)에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918.12백만불)로 가장 크며, 그 중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426.13백만불)와 보건 분야(180.21백만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07년 스웨덴의 인도적 지원은 307.62백만불로 전체 양자간 원조에서 두 번째로 크며, NGO에 대한 지원 역시 303.78백만불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SIDA 통계¹³⁾에 따르면, '07년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으로 양자간 원조의 23%를 차지하며, 그 뒤로는 "인도적 지원(13%)" 및 "천연자원과 환경(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13%) 분야 순
- 위의 세 분야는 스웨덴의 ODA 전략서인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의 주요 지원 분야에 해당
- 스웨덴 정부는 2008년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기후, 성평등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세 분야를 우선지원분야(thematic priorities)로 선정하였는바, 이미 스웨덴 통계에서 동 세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의 증가를 엿볼 수 있음
- 환경은 그 동안 중점지원분야로서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07년 스웨덴 원조의 54%가 환경을 고려한 원조 사업(Environment focused aid)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이 증가 추세

[언타이드 현황]

- 스웨덴은 '06년 이후 모든 원조를 언타이드로 제공하고 있으며, '07년 언타이드 원조(1,981.82백만불) 중 직접 조달부문에서의 언타이드 원조 규모가 96.7%(1,907.34백만불)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스웨덴의 Tying Status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타이드	12.4	-	0.6	1.7	-	-
언타이드	87.6	100	99.4	98.3	100	100

13) SIDA 통계의 경우 OECD/DAC과 분야별 분류 기준이 상이함

다. 다자간 ODA

- 스웨덴의 다자간 원조는 2005년 급격히 증가한 이래 꾸준히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전체 ODA의 약 32.4%(순지출 기준)를 차지
- UN은 스웨덴의 주요 다자간 원조 파트너로서 '07년 UN 기구에 대한 출연은 다자간 원조 중 38.3%, 총 ODA 중 1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DAC 평균의 2배 수준에 해당
 - UN 기구 중에는 UNDP(22%), UNHCR(15%), UNICER(12%)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
- EC와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다자간 원조는 각각 전체 다자간 원조의 22.2%(312.71백만불)와 22.8%(320.38백만불)로 비슷
- 지역개발은행에는 전체 다자간 원조의 10%(141.2백만불)가 배분되었으며, 그 중 AfDB(AfDF)에 대한 원조(106.33백만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간 원조(multi-bi)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62백만불 규모로, 다자간 원조의 범위를 multi-bi 원조까지 확대할 경우 스웨덴의 다자원조는 전체 ODA의 절반 이상을 차지

스웨덴 다자간 원조의 추이

(순지출 기준, 백만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다자간 원조	740.98	620.73	646.26	1,105.83	1,103.07	1,406.72
UN 기구	225.38	267.94	290.11	466.13	516.69	538.87
EC	83.21	122.82	225.15	197.57	245.95	312.71
세계은행그룹	358.92	-	24.5	274.55	47.47	320.38
지역개발은행	70.46	133.19	47.69	104.01	108.89	141.20

- DAC은 '09년 Peer Review를 통해 현재 다자간 원조의 수혜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외교부 내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도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스웨덴 원조 목표 및 원조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원조에 대한 조정(rationalising)이 필요하다고 제안

라. 스웨덴 개발협력과 시민사회

- 스웨덴은 시민사회에 대한 강력한 지지국으로서, 총 양자간 원조의 8%를 시민사회(CSO)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통한 프로젝트 원조의 이행이 '07년 총 ODA의 2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웨덴 개발협력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스웨덴은 국내 및 수원국 내의 시민사회 조직과 활발하게 대화 채널을 형성해왔으며, 시민사회를 단순히 원조 이행의 창구가 아닌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
- 시민사회의 주요 지원 분야는 “민주주의와 인권”, “천연자원과 환경”으로서, 이는 스웨덴 정부의 중점지원분야와도 부합

붙임 : SIDA의 양자간 원조 지원 대상국 목록(2009 현재)

- 자료 :
1. DAC Peer review 2009, Sweden
 2.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2008 [DCD/DAC(2008)58/final]
 3. OECD/DAC Peer Review of Sweden - Memorandum [DCD/DAC/AR(2009)1/18]
 4. Fact sheet on the Swedish Government's Budget Bill for 2009
 5. Strategy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7, MFA
 6. Strategy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8, MFA
 7. 스웨덴 정부 웹사이트 www.sweden.gov.se
 8. 스웨덴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sweden.gov.se/sb/d/2059/m/header>
 9. SADEV 웹사이트 <http://www.sadev.se/Bazment/2.aspx>
 10. SIDA 웹사이트 www.sida.se
 11. 스웨덴 의회 웹사이트 www.riskdagen.se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김기혜, 1888@koreaexim.go.kr

(붙임) SIDA의 양자간 원조 지원대상국 목록 (2009 현재)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국가	보츠와나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콜롬비아
	부룬디	인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코소보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중국	마케도니아	
	케냐	라오스	몰도바	
	라이베리아	스리랑카	러시아	
	말리	베트남	세르비아	
	모잠비크	동티모르	터키	
	나미비아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합계	총 19개 국	총 10개 국	총 10개 국	총 4개 국

<자료 : SIDA 홈페이지, www.sida.se>

목차보기

ODA 자료 2

2008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의 주요 내용

【요약】

- '08년 우리나라 ODA 지원규모(순지출)는 802백만불, ODA/GNI비율은 0.09% 기록
-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는 각각 539백만불 및 263백만불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는 각각 369백만불 및 171백만불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
- 양자간 원조에서 지역별로는 아시아(52%)에,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39%)에 원조가 많이 집중됨
-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48%)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37%)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양자간 원조의 85% 차지

1. 전체 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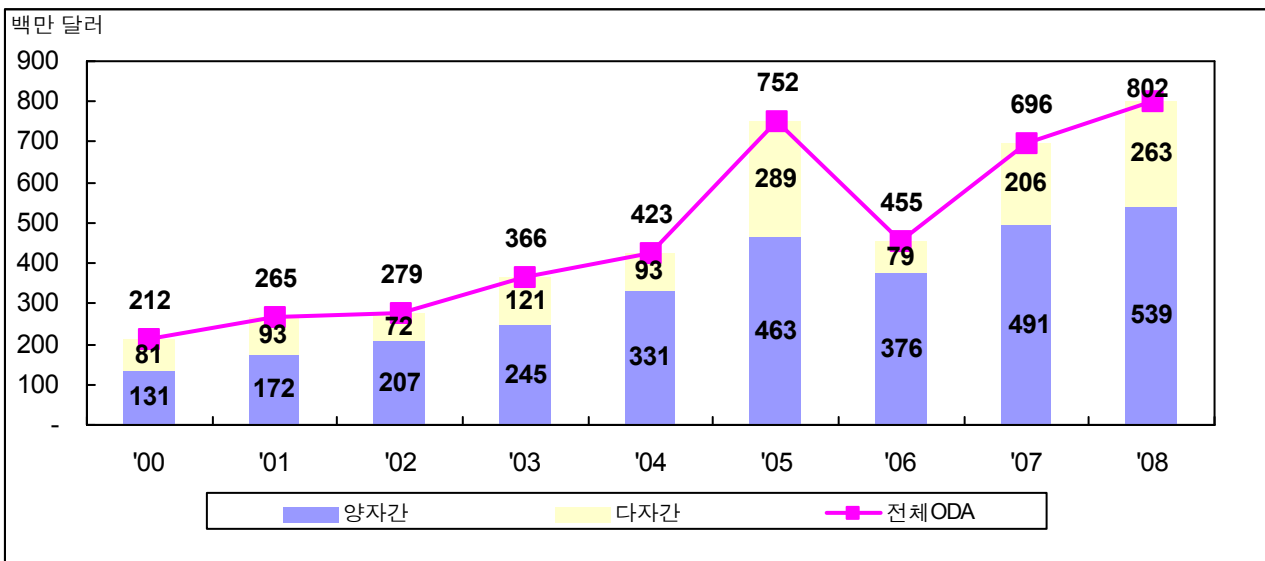
- 2008년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순지출 기준)은 총 802백만불로 전년(696백만불)대비 15.3% 증가
 - 양자간 원조는 전년(491백만불)대비 9.9% 증가한 539백만불을 기록
 - 무상원조는 369백만불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171백만불로 전년대비 29.0% 증가
 -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 비중은 전년(26.9%) 대비 증가한 31.6%
 - 다자간 원조는 전년(206백만불)대비 28.0% 증가한 263백만불을 기록
 - IDB에 대한 출연 증가(70백만불)가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 원인
- 약정 기준 ODA 지원규모는 1,668백만불로 전년(1,382백만불) 대비 20.7% 증가
 - 유상원조의 증가(968백만불, 전년대비 65.7% 증가)가 주요 원인
- 2008년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09%, 1인당 ODA는 16.5불

2008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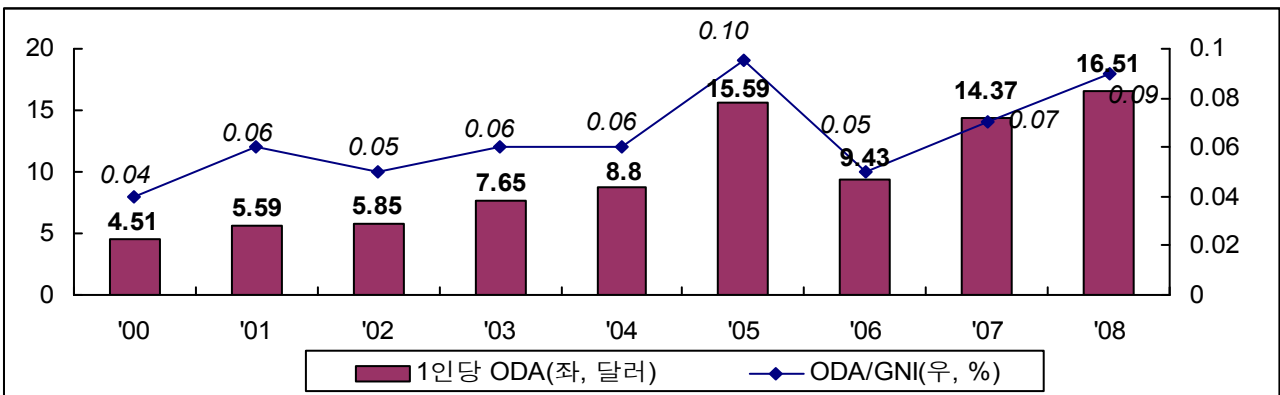
(순지출, 백만불)

구 성 항 목	2007년	2008년	증감율(%)	구성비(%)
ODA	696.11	802.34	15.3	100.0
양자간 ODA	490.52	539.22	9.9	67.2
무상원조	358.33	368.67	2.9	양자중 68.4
(그중: KOICA)	270.09	272.40	0.9	(무상중 73.9)
유상원조(EDCF)	132.19	170.55	29.0	양자중 31.6
다자간 ODA	205.59	263.12	28.0	32.8
(그중: 한국은행)	139.35	202.46	45.3	(다자중 76.9)
ODA(총지출)	731.07	841.79	15.1	
ODA(승인)	1,381.85	1,667.84	20.7	
ODA/GNI (%)	0.072	0.086	0.014%p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순지출 기준)



2.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백만불)

양자간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 램 원조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주)}	채무 탕감	개발인식 증진	행정 비용	기타	소계	프로젝트 원조	소계
539.22	69.82	30.14	181.05	23.71	16.38	10.33	4.19	31.51	1.55	368.67	170.55	170.55
다자간 원조	출 자 · 출 연										양허성 차관	
	UN 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소계				
263.12	46.69	69.68	9.00	ADB/ADF	IDB	AfDB/AfDF			11.81	263.12	-	

주)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지원(7.27백만불) 포함

□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 원조의 동반 실적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9.9% 늘어난 539.22백만불을 기록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368.67백만불을 기록

- 무상원조는 KOICA(73.9%), 교육과학기술부(5.7%), 행정안전부(2.9%) 등 3개 기관(부처) 지원액이 전체의 82.4%를 차지
- 무상원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KOICA는 그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 (75.4% ⇒ 73.9%)

- 무상원조 지원 형태별로는 기술협력(49.1%)과 프로젝트 원조(18.9%)가 전체의 68.0%를 차지, 특히 기술협력은 최근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

· 기술협력(백만불): '05년(80.16)→'06년(116.78)→'07년(164.08)→'08(181.05)

- '08년 한국은행의 IMF 라이베리아 채무탕감 출연기금¹⁴⁾에 대한 출연이 10.33백만불을 기록

○ 유상원조도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170.55백만불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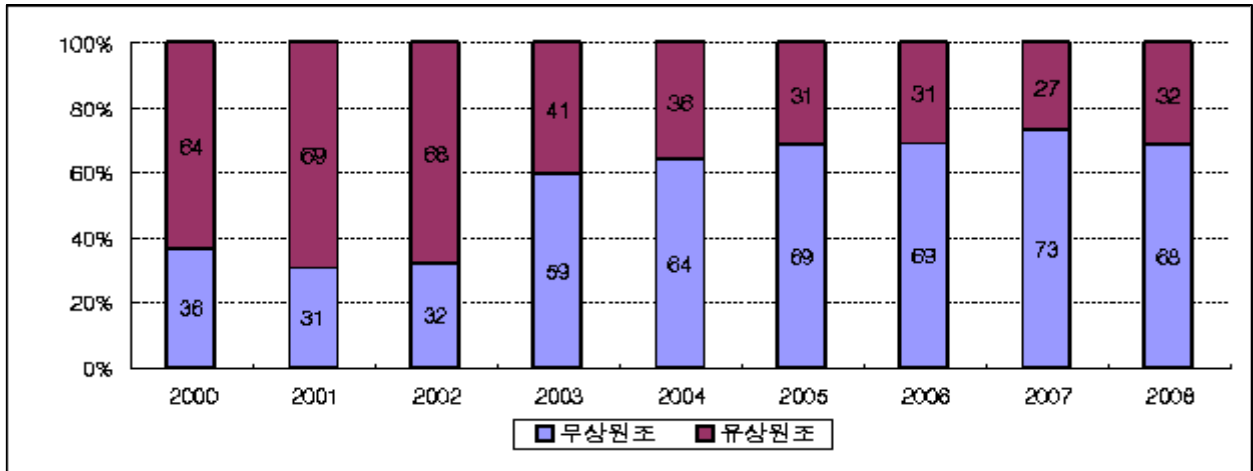
- 유상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38백만불 증가했으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26.9%에서 '08년 31.6%로 증가

14) IMF 라이베리아 채무탕감 출연기금은 '07.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97개 회원국으로부터의 부채탕감을 위한 재원 분담에 따른 다자채권에 대한 출연금으로서, 동 기금의 사용이 라이베리아에 특정(earmarked)된 점을 감안, 국제기구가 사업 실시기관으로 참여하는 양자간 원조(multi-bi)로 보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채무탕감(무상원조) 사례로 기록

- '08년 약정(승인)액은 967.81백만불로 전년(584.20백만불) 대비 약 65.7%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유상원조 지출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양자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중 추이

(순지출, %)



3. 지역·국가별 현황 (순지출 기준)

□ 2008년 양자간 ODA 순지출액 중 52.2%가 아시아에 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19.3%), 중남미(12.7%) 등이 그 뒤를 이음

○ 아시아 지원비중은 감소, 아프리카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아시아 및 아프리카 비중 추이

- 아시아(%): '05년(80.9) → '06년(60.5) → '07년(61.2) → '08년(52.2)
- 아프리카(%): '05년(8.4) → '06년(12.7) → '07년(14.3) → '08년(19.3)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순지출, 백만불)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183.40	73.53	35.41	3.61	2.73	69.98	368.67
유상원조	97.95	30.55	33.28	9.28	△0.5	-	170.55
합계	281.35	104.08	68.69	12.89	2.23	69.98	539.22
(비중 : %)	(52.2)	(19.3)	(12.7)	(2.4)	(0.4)	(13.0)	(100)

- 국가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9.9%(유상 원조의 23.5%)를 차지하였고, 캄보디아(6.4%), 앙골라(4.8%)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 2003년부터 5년간 최대 수혜국이었던 이라크에 대한 무상원조가 감소한 반면, 베트남, 앙골라 등에 대한 유상원조 증가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백만불)

순위	국가	무상	유상	양자간 ODA	(비중,%)
1	베트남	13.14	40.09	53.22	9.9
2	캄보디아	13.40	21.25	34.66	6.4
3	앙골라	0.12	25.80	25.92	4.8
4	필리핀	9.59	11.57	21.16	3.9
5	스리랑카	9.83	10.46	20.30	3.8
16	이라크	9.76	-	9.76	1.8
전체 양자간 ODA		368.67	170.55	539.22	100.0

유·무상 국가별 지원순위 (순지출 기준)

순위	무상원조		유상원조	
	국가	규모 (백만불)	국가	규모 (백만불)
1	몽골	15.68	베트남	40.09
2	캄보디아	13.40	앙골라	25.80
3	베트남	13.14	캄보디아	21.25
4	중국	12.76	도미니카공화국	12.44
5	인도네시아	10.66	필리핀	11.57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에 양자간 ODA의 38.5%가 지원되었고 최빈국에는 26.8%가 지원됨
-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06년(49.4%), '07년(46.4%)에 비해 감소한 반면,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06년(24.5%), '07년(24.7%) 대비 소폭 증가

-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무상원조가 17.8%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는 1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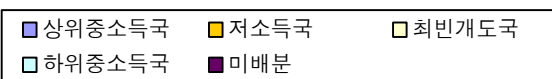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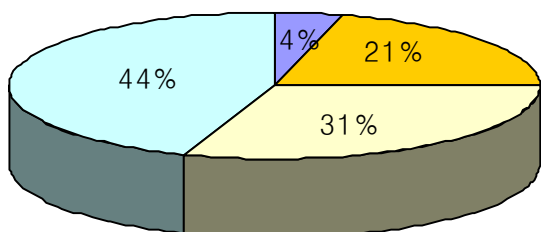
- 유·무상 원조 모두 하위중소득국 비중이 가장 크지만, 유상원조의 경우 최빈국 지원이 감소하고, 기타저소득국 지원이 증가한 반면, 무상원조의 경우 최빈국 지원이 증가하고 기타저소득국 지원이 감소
- 유상원조의 경우,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52.73백만불로, 전년(56.07백만불)보다 6.0% 감소한 반면, 기타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35.12백만불로 전년(5.6백만불)보다 527.1% 증가
- 무상원조의 경우, 최빈국(캄보디아, 라이베리아(채무탕감) 등)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년(64.91백만불)대비 41.0% 증가한 91.53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기타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33.39백만불로 전년(58.80백만불)대비 43.2% 감소

‘08년 유·무상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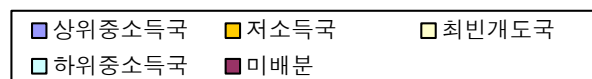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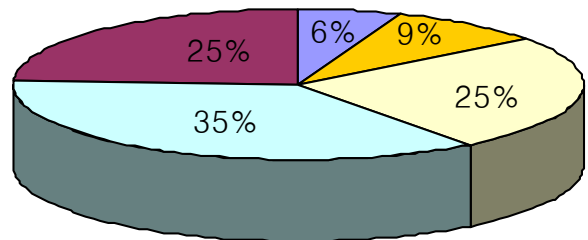
(백만불)

구분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최빈국	91.53	52.73	144.26
기타저소득국	33.39	35.12	68.51
하위중소득국	132.15	75.64	207.79
상위중소득국	21.10	7.06	28.16
소득 미배분	90.50	-	90.50
합계	368.67	170.55	539.22

유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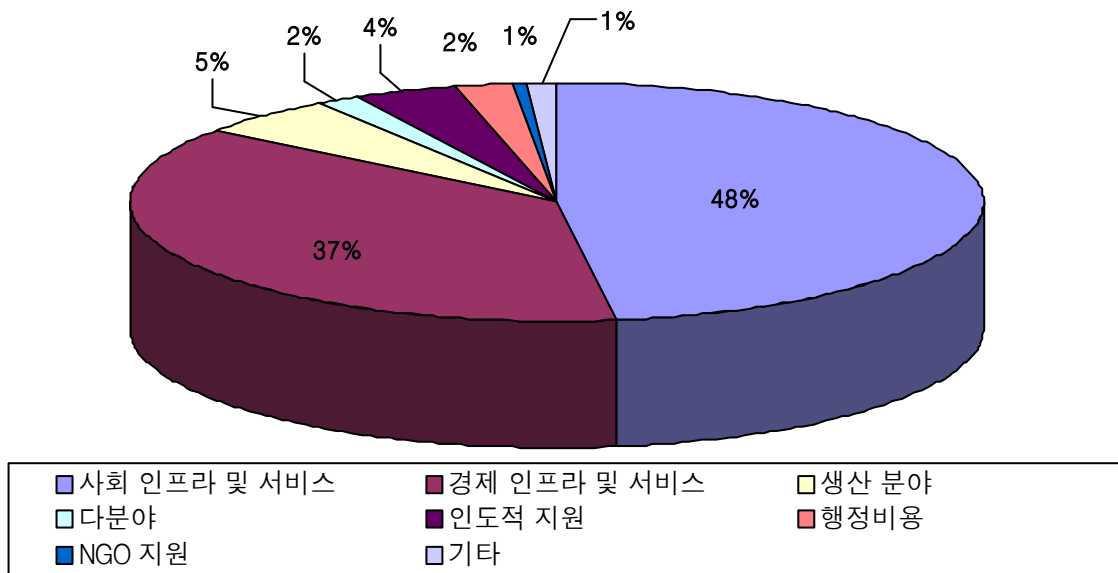
무상원조의 소득그룹별 배분 비중



4. 분야별 현황 (약정 기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47.8%)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37.4%)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85.3%를 차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총 U\$696.00백만으로 전년(U\$410.50백만)대비 69.5% 증가
 - 동 분야에서는 수자원·위생부문이 U\$269.70백만(3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건부문은 U\$238.21백만(34.2%)으로 그 뒤를 이음
 - 작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교육부문은 U\$112.46백만으로 전년 (U\$160.17백만)대비 29.8% 감소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총 U\$544.52백만으로 전년(U\$402.86백만)대비 35.2% 증가
 - 동 분야에서는 교통부문이 U\$268.33백만(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에너지(33.4%), 통신(16.8%)이 그 뒤를 이음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약정 기준)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

(승인, 백만불)

구 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기타	합 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540.78	18.11	129.97	7.15	696.00
교육	62.28	0.95	49.23	-	112.46
보건	188.03	1.31	41.72	7.15	238.21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11.69	1.98	6.44	-	20.11
수자원 및 위생	268.15	0.40	1.16	-	269.7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7.50	12.55	23.47	-	43.53
기타	3.13	0.92	7.95	-	12.00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496.48	3.66	44.38	-	544.52
교통	263.44	0.41	4.48	-	268.33
통신	58.27	2.32	30.70	-	91.29
에너지	174.77	-	7.22	-	182.00
금융 서비스	-	-	1.97	-	1.97
기타	-	0.93	-	-	0.93
생산	37.16	1.33	38.95	-	77.44
농업·임업·수산업	29.61	0.47	17.67	-	47.74
산업·광업·건설	7.50	-	12.03	-	19.53
통상정책 및 조정	-	0.77	8.88	-	9.65
무역 및 관광	0.05	0.09	0.37	-	0.52
다분야	4.92	7.07	12.41	0.13	24.52
인도적 지원				55.78	55.78
행정비용				31.51	31.51
NGO 지원 ¹⁾				9.10	9.10
기타 ²⁾				16.07	16.07
합 계	1,079.34	30.17	225.70	119.74	1,454.96

주 : 1)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지원(7.27백만불)은 제외

2) 물자원조 및 일반프로그램원조(1.55백만불), 부채관련지원(10.33백만불), 미배분(4.19백만불) 등

5. 다자간 원조 현황

- 다자간 원조 순지출액은 전년(205.59백만불)대비 28.0% 증가한 **263.12** 백만불을 기록
 - 다자간 원조 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은 77.8%로, 전년(69.8%) 대비 증가한 반면, UN기구에 대한 출연은 전년(23.2%) 대비 감소한 17.7%
 - 미주개발은행(IDB)에 대한 추가출연(U\$70백만)으로 국제금융기구 비중 증가
- 2008년 다자간 원조 승인액은 212.88백만불로, 2009년 다자간 원조는 금년 대비 감소할 전망

다자간 ODA 현황

(순지출, 백만불)

	2007			2008		
	출자	출연	합계	출자	출연	합계
UN	-	47.68	47.68	-	46.68	46.68
UNPKO(7%)	-	14.19	14.19	-	7.43	7.43
세계은행그룹	82.00	4.87	86.86	69.68	9.00	78.68
IDA	82.00	0.33	82.33	69.68	-	69.68
Other World Bank	-	4.54	4.54	-	9.00	9.00
지역개발은행	14.96	41.68	56.64	14.57	111.37	125.94
ADB/ADF	-	41.68	41.68	-	37.87	37.87
AfDB/AfDF	14.96	-	14.96	14.57	3.50	18.07
IDB/IDF	-	-	-	-	70.00	70.00
기타국제기구	-	14.40	14.40	-	11.81	11.81
합 계	96.96	108.63	205.59	84.25	178.87	263.12

6. 비구속성 원조 (약정 기준)

□ 2008년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35.8%로, 전년(24.7%)대비 증가

○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43.3%로, 전년(26.1%) 대비 증가

- KOICA의 단계적 비구속성 원조 확대계획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승인액 증가

* KOICA 비구속성 원조 : '07년(5,532만 달러) → '08년(7,090만 달러)

○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34.0%로, 전년(24.2%) 대비 증가

- '08년 베트남에 31.20백만불 규모의 비구속성 원조 약정

- 유상차관(EDCF)의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은 319.36백만불 기록

* 현지화 소요비용 : '06년(미분류)→'07년(127.03백만불)→'08년(319.36백만불)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약정 기준, 백만불)

구 분		2007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양자간 ODA ¹⁾	비구속성	199.7	24.7	428.8	35.8
	구속성 ²⁾	608.8	75.3	768.9	64.2
	총 계	808.6	100.0	1,197.7	100.0
무상 구분		금액	무상내 비율	금액	무상내 비율
무 상	비구속성	58.6	26.1	99.7	43.3
	구속성 ²⁾	165.8	73.9	130.3	56.7
	무상 소계	224.4	100.0	229.9	100.0
유상 구분		금액	유상내 비율	금액	유상내 비율
유 상	비구속성	141.2	24.2	329.2	34.0
	구속성 ²⁾	443.1	75.8	638.6	66.0
	유상 소계	584.2	100.0	967.8	100

주 : 1)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 제외

2) 부분 비구속성 금액 포함

7. 기타공적재원(OOF)

- 2008년 우리나라의 기타공적재원 규모는 1,903백만불(순지출)로 전년(1,005백만불)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자관련 거래가 전년 대비 무려 240% 증가하였기 때문

2008년도 기타공적재원 규모

(순지출, 백만불)

구 분	2007	2008
기타공적재원	1,005.29	1,902.97
수출관련 거래	537.07	311.08
개도국으로의 공적수출신용	602.09	311.58
국내 민간 수출자에 대한 차관	△ 65.01	△ 0.50
국내 민간 수출자에 대한 이자 보조	-	-
투자관련 거래	468.21	1,591.89
수원국과의 거래	516.26	1,173.17
국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차관	△ 48.04	418.72
국내 민간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	-
재조정(Rescheduling)	-	-
기타 유가증권 및 클레임	-	-
Offsetting entry for debt relief	-	-

작성 : 서문근영, suhmoongy@koreaexim.go.kr

목차보기

2009년 3/4분기 EDCF 소식

1. 2009년 3/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① 정부지원방침 결정

□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하띤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74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8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하띤성 중등직업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매
- 사업개요
 - 최근 하띤성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계획 중인 주요 사업의 인력수요만 해도 약 7만명에 육박함. 하지만 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띤성 중등직업학교는 기자재 부족, 교육인력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성 내 증가하는 기술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에 최신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직업훈련 체제 정비와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 등이 기대됨
 - 2009년 4월에 베트남 하띤성이 완료한 사업타당성 조사(F/S)와 2009년 5월 베트남 정부의 내부절차(총리 승인)를 거쳐 한국정부 앞으로 EDCF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사업 지원 결정(2009년 9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베트남 팡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팡빈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6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6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팡빈성 직업전문대학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매
- 사업개요
 - 팡빈성 직업전문대학은 직업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자재 부족, 교육인력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팡빈성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기술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사업은 팡빈성 직업전문대학 앞 기자재 공급, 검수 및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팡빈성과 베트남 중북부 지역의 고등 직업훈련센터의 모범적인 모델로 베트남 직업훈련의 체제를 정비하고 개발을 촉진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4월에 베트남 팡빈성이 완료한 사업타당성 조사(F/S)와 2009년 5월 베트남 정부의 내부절차(총리 승인)를 거쳐 한국정부 앞 EDCF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사업 지원 결정(2009년 9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라오스 5개 공항 소방설비 공급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재정부 (라오스 공안부)
- 총 사업비용 : 3.34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라오스 5개 공항(사반나텃, 루앙프라방, 우돗사이, 웨이사이, 시엥쿠앙)에 대하여 항공기구조 소방차, 물탱크 소방차, 기타 소방설비 공급

○ 사업 개요

- 본 사업 대상 5개 지방소재 공항의 경우 대부분 유류화재인 항공기화재 진압용 항공기 구조소방차가 없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하는 안전 시설 확보기준에 미달하여 항공기 및 공항건물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사업을 통해 5개 지방공항 항공기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능력 확충으로 수원국의 공공안전 및 대외 신인도 향상이 기대됨. 또한, 25회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5개 지방공항의 여행객의 안전 확보 및 유사시 신속한 소화, 인명구조 능력 향상으로 대형화재 확대 차단 및 재해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됨
- 본 사업은 2009년 3월 라오스 정부가 소방설비 현대화를 위해 본 사업 관련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현지 한국공관 앞으로 EDCF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2009년 6월 라오스 총리 방한 시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ODA를 통한 본 사업 지원을 요청, 2009년 9월에 정부지원방침 결정

□ 라오스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재정부 (라오스 공안부)
- 총 사업비용 : 3.34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9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비엔티엔시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부 산하 소방방재 국에 대하여 물탱크 소방차, 구조사다리차 등 주요 소방 설비 공급

○ 사 업 개 요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시의 경우 소방방재국 산하 2개 소방서에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80년대 이후 러시아 및 일본에서 도입된 중고차량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이중 일부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함. 최근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행, 동남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비엔티엔시 인근 화재시 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 제고를 위한 신규 소방설비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사업은 비엔티엔시에 소방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증가하는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민구조 및 화재진압 관련 설비 선진화로 전반적 공공안전수준 향상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라오스 정부가 현지 한국공관 앞 EDCF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2009년 6월 라오스 총리 방한시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ODA를 통한 본 사업 지원을 요청하였고, 2009년 9월에 정부지원방침이 결정

□ 라오스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재정부 (라오스 공안부)
- 총 사업비용 : 3.34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9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라오스 공안부 산하 109병원에 대하여 검사장비 및 구급차, 이동검진차량 등 주요 의료기자재를 공급
- 사 업 개 요
 -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시의 109병원은 1983년 설립된 60 병상 규모의 경찰 및 공무원 전문병원으로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나, 보유한 의료기자재의 수준이 대체로 낮고 노후화되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빈곤 퇴치와 라오스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부문 개발계획 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오스 정부가 현지 한국공관 앞으로 EDCF 지원 요청 후, 2009년 9월에 정부 지원방침이 결정

□ 방글라데시 CNG버스 구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재무부 (방글라데시 도로운송회사: BRTC)
- 총 사업비용 : 38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CNG 버스 300대 구매
- 사업 개요
 -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시는 열악한 도로사정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및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도로혼잡, 빈번한 교통사고 및 대기 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
 - 본 사업은 수도인 다카시내 및 시외 구간 운영을 위해 300여대의 CNG 버스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다카 시 대기오염 개선 및 교통혼잡 해소와 이용객 편익 증진 및 도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6년 6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계획서(DPP)를 승인하고, 2006년 9월 한국정부 앞 EDCF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이후 2009년 9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② 차관공여계약 체결

□ 필리핀 바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필리핀 재무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 Dept)
- 총 사업비용 : 2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3.1백만 달러
- 사업범위 : Negros Occidental 주 수도인 바콜로드시와 신규공항 건설 예정지역인 실라이시 연결도로(10.12km) 신설, 교차로 및 교량 건설에 신규 도로 건설
- 사업개요
 - 바콜로드 해안도로의 교통량 증대 및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교통혼잡 감소,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안정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 신공항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
 - 본 사업을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바콜로드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주변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바콜로드 해안도로의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EDCF의 지원으로 타당성조사(F/S)를 완료한 후 2008년 10월 차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고, 2009년 7월에 차관공여계약 체결

□ 필리핀 GSO 도로건설 2차 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필리핀 재무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 Dept)
- 총 사업비용 : 44.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8.3백만 달러
- 사업범위 : GSO 도로의 Palcarangan - Phalihan 구간(11.3km) 확장(2차선→4차선), 신규 우회도로 건설, 길어깨 개량, 교량신설 및 확장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사업지역 상업지구 교통체증 해소, 인근 관광 및 상업중심지로의 접근성 강화 및 운송비용·시간 절감, 근 수빅만 자유무역지대로의 접근성 강화, 자연재해로 침체된 팜팡가주, 바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1차 사업)의 후속 사업임
- 필리핀 정부는 2005년 9월 GSO 도로확장 및 긴급준설사업(1차 사업, 산페르난도~팔카랑간간 18km)의 EDCF 지원 요청에 이어, 2008년 10월 후속사업인 본건(팔카랑간~올롱가포간 19.69km)의 지원을 요청하여 왔음. 이후 2008년 12월에는 정부지원방침 결정이, 2009년 7월에는 차관공여계약 체결

□ 베트남 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롱안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8.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확장(4만톤/일)
(취수장, 정수처리장, 가압장, 송수관망 등)
- 사업개요

- 본 사업 실시지역인 롱안성의 상수도시설은 주민의 물 부족 및 수인성 질병 위험에의 노출이 심한 편임
- 본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됨. 또한 고원지대 특성에 맞는 목축업과 관광업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됨
- 본 사업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월간 본건 F/S를 수행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2008년 3월 베트남 내부절차(총리 승인)를 얻고 2008년 4월 한국정부 앞 EDCF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2009년 8월 차관공여 계약이 체결됨

□ 베트남 탕화시 사회경제개발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탕화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117.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2.74백만 달러
- 사업범위 : 1. 도로: 탕화시내 도로신설 및 개보수(20km) 등
2. 상수: 기존 수도관(19km) 교체 및 신규 수도관 설치(20km)
3. 하수: 배수관(27.7km)·관거((9.5km), 펌프장 하수처리장
4. 직훈: 직업학교, 평생훈련원, 수공예학교, 관광·상업학교 등
5. 관광: 도시 박물관, 공원, 안내소, 접근도로 등
* EDCF : 도로부문(도로신설·개보수, 전기/전력 파이프, 하수관 포함)

○ 사업개요

- 베트남에는 탕화시를 포함하여 11개 Class II 도시(인구 25만명 이상)가 있으며, 본 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탕화시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대도시 인구집중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ADB는 지리적 위치, 인구, 빈곤수준, 경제발전 잠재력, 인프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탕화시를 종합사회경제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소도시 발전모델로 삼을 계획이며, 본 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하여 EDCF 지원을 요청하여 왔고, 2009년 8월에 차관공여계약 체결

③ 구매계약 체결

□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제 10구간 건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인프라개발투자회사: VIDIFI)
- 총 사업비용 : 1,70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0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하노이부터 하이퐁까지 총 연장 105.5km, 왕복 6차선의 고속도로 건설 등(이중 제 10구간(9.1km) 지원)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베트남과 중국 간 'One Economic Belt, Two Corridors'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벨트 구축과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경제개발 촉진 등의 여러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
- 본 사업은 2007년 7월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와의 정책협약시에 지원 예정사업으로 등재되어 '08년 제7구간에 대하여 1억 달러를 이미 지원하였으며, 2009년 2월 베트남 정부는 본건 제10구간에 대하여 차관지원 신청 후 2009년 7월 구매계약체결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9. 9.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6년	3,978	1,361	19,238
2007년	7,121	1,553	21,169
2008년	11,990	2,371	23,060
2009년(9월말)	2,374	1,709	24,589

* 2009. 9. 30자 환율 (₩1,195.43/US\$)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5국 209개사업, 4조 9,075억원('09년 : 4개국 9개사업, 2,374억원)
- 집행 : 39국 157개사업, 2조 1,812억원('09년 : 18개국 38개사업, 1,709억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 누계 (1987~2009. 9)

○ 지역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34,251	69.8%	14,590	66.9%
유 럽	3,980	8.1%	2,875	13.2%
아 프 리 카	6,106	12.4%	2,335	10.7%
중 남 미	2,537	5.2%	1360	6.2%
중 동	2,034	4.1%	570	2.6%
대 양 주	166	0.3%	82	0.4%
합 계	49,075	100%	21,812	1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15,102	30.8%	6,410	29.4%
통 신	4,849	9.9%	3,427	15.7%
에 너 지	5,541	11.3%	2,370	10.9%
수자원, 위생	8,398	17.1%	2,576	11.8%
환 경 보 호	233	0.5%	148	0.7%
보 건	5,296	10.8%	1,975	9.1%
교 육	3,996	8.1%	1,453	6.7%
공 공 행 정	2,127	4.3%	1,758	8.1%
농 수 입	1,919	3.9%	1,019	4.7%
기 타	1,615	3.3%	677	3.1%
합 계	49,075	100%	21,812	100%

3. EDCF 동향

[EDCF 녹색성장 지원방안 마련]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산업에 대하여 EDCF를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지원방안내용('09.9.25자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 녹색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EDCF 지원규모 확대
 - 4년간('09~'12년) 당초 1.2조원 → 1.7조원으로 확대
 - 녹색성장산업 관련 중점지원분야 선정
 -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등 6개 분야
 - EDCF 지원조건 개선
 - 신성장 분야(태양광·풍력·바이오)에 대해 금리인하, 참여대상업체 확대 등 지원조건 개선

[대통령 정상외교시 EDCF 기본약정 체결]

- 이명박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시 EDCF 기본약정 체결 예정(10.14, 한국경제)
 - 20~25일 베트남, 캄보디아 및 'ASEAN+3'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문 예정
 - 캄보디아 방문 시 EDCF 기본약정 체결 예정
 - * 기본약정 체결 내용 : ('08-'11) 1.2억불 → ('09-'12) 2.0억불(0.8억불 증액)

[경협본부장, 영국 DFID 차관보 면담]

면담개요

- 면담자 : Martin Dinham (Director General, DFID)
- 일 시 : '09. 10. 28(수) 오후 2:30~3:20

주요 논의내용

- 영국의 주요 원조형식, 예산지원(Budget Support),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방식 설명
- 영국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경위 설명.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부터 착수할 것을 제안
- 언어, 다국적 우수 인력의 영입 등 영국 컨설팅산업의 경쟁력 의견 교환

작 성 : 예 동 균, 1906@koreaexim.go.kr

목차보기

국내외 ODA 소식

국내외 ODA 소식

(2009. 10. 1 ~ 2009. 10. 30)

[제64차 UN총회 연설시 이명박 대통령 ODA 확대 천명]

-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강조
-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 이행공약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특히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 대비 세 배 이상 확대해 간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 연설문 중 발췌)

[DAC 가입 관련 소식]

- OECD/DAC은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위한 실사('09.6)를 거쳐 작성한 가입실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
- 가입실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DAC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
 -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확대, 부처간 조정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평가모니터링 강화, EDCF 지원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일정
 - 동 보고서 회람 후,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위한 특별회의 ('09.11.25 예정)에서 가입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

[JICA, 최빈개도국 대상으로 CDM 토론회 개최(10.1, JICA 홈페이지)]

- 일본 JICA, 방콕에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CDM 토론회를 우간다 정부와 공동 개최
- 토론회 개요
 - 목적 : 최빈개도국내 CDM 사업 촉진을 위한 의견 교환
 - 전 세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1800여개의 CDM 사업 중 3/4 이상이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의 4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빈개도국에서는 CDM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
 - 참가자 : 최빈개도국 관계자 약 70여명

[외교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공적원조 최하위 지적(10.5, 뉴시스)]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우리나라 ODA 규모는 8억불로 최하위권' 지적
 - GNI대비 ODA규모는 0.09%로 OECD/DAC 평균 0.3%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지원금액은 최하위권이지만, 지원하는 국가의 수는 56개국으로 소액 다국가 지원시스템을 유지
 - ODA 지원규모가 비슷한 그리스(6.9억불)는 21개국, 포르투갈(6.1억불) 10개국, 핀란드(11.4억불) 13개국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액이 턱없이 낮지만 지원국가의 수가 많은 것은 지원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생색내기 지원을 한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역량 확충 필요성 제기

[국무총리실, 공적개발원조 담당하는 조직 총리실에 신설(10.14, 동아일보)]

- 국무총리실, 공적개발원조 담당하는 조직을 총리실에 신설
 - 정운찬 총리 취임으로 총리실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
 -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ODA 확대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신설

[지구촌나눔운동 김혜경 총장,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인터뷰 실시(10.11, 연합뉴스)]

- 지구촌 나눔운동 김혜경 총장,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외원조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정력 제고 필요성 지적
 - 현재 30개 정부 부처가 각각 무상원조를 집행하고 있지만 목적 및 방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조정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

[JICA 이사장, 이라크에 총 878억엔의 엔차관 3건 지원 약속(10.11, 고베신문)]

- JICA 이사장, 이라크에서 이라크 마라키 수상과 회담을 갖고 신규 엔차관 3건 지원 약속
 - 이라크 중서부 앙바르주의 아카즈 화력발전소 등 총 3건 878억엔의 지원을 약속
- 이라크 남부 대형유전개발 사업에 신일본석유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이라크에서 일본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임

[중국, 기니 군부와 70억달러 자원개발 협상 진행중(10.12, 매일경제신문)]

- 중국, 70억달러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기니 정부와 협상중
 - 동 자원개발 사업은 최대 규모이며, 중국은 광산과 전력, 교통망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예정
 - 르완다 대통령은 서방 세계 역시 개발원조보다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를 적극지지

[한·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10.21, 연합뉴스)]

-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 베트남 정부는 우리 정부의 ODA가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측은 중점지원국인 베트남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약속
 - 특히, 양측은 우리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기개발계획, 금융재정정책, 산업기술정책, 인적자원개발, 환경정책 등의 분야에서 개발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
 - 양측은 한-베 FTA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논의를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측은 특히 호찌민-나짱 구간 복선전철,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요청
 - 베트남 측은 한-베트남 주간(Vietnam-Korea Week)을 통한 양국간 문화교류에 대해 환영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증진키로 합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개최 (10.23, 조선일보)]

- 이명박 대통령은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을 공유하기로 합의
 - EDCF 지원액을 '08년~'11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09년~'12년 2억달러 규모로 확대
 - 조림투자, 광물자원 공동연구, 양국 상의(商議)간 협력, 방송 콘텐츠 제작 등 6개의 MOU 체결
 - 조림투자 MOU에 따라 20만 ha의 조림지 확보
 -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이대통령, 한-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10.24, 머니투데이)]

- 이명박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관계강화 위해 유·무상원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2015년까지 아세안 국가 대상 ODA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 1억 달러를 인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 6개 국가의 5개 녹색협력 사업(물관리, 저탄소도시, 신재생에너지, 산림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에 지원할 예정
- 한국과 아세안 측 모두 한-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볼리비아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10.28, 아주경제)]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리튬 확보를 위해 볼리비아에 자원협력 사절단 파견
 - 볼리비아는 교량 및 수력발전소 건설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EDCF 등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정부 관계자, 포스코, LG상사 등 기업 임원을 이끌고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하여 볼리비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적 지원방안 설명

[일본, 베트남 ODA 재개(10.27, 연합뉴스)]

- 일본, 뇌물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베트남에 대한 ODA 재개
 -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 남부 건너대교 연결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09 회계연도 중 7억 8백만 달러의 ODA를 제공할 예정
 - 사건 개요
 - '08년 일본 컨설팅 업체가 호찌민 시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ODA 자금으로 건설되는 도로공사를 일본 업체가 낙찰 받은 사건
 - 진행 상황
 - ① 일본 정부, 관련자 3명 구속 후, 베트남 정부에도 관련자 처벌 요구
 - ② 베트남 정부가 처벌을 거부하자 일본 정부는 ODA 제공 중단을 발표
 - ③ 베트남 정부가 올 1월 뇌물 수수 혐의자를 구속
 - 일본의 對베트남 ODA 지원 누적액은 현재까지 약 150억 달러임

[일본, 인니에 대해 지구 온난화 관련 4억 달러 엔차관 제공(10.26, 산케이신문)]

- 하토야마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온난화 관련 4억 달러의 엔차관 제공을 약속
 - 이번 엔차관 제공은 '09.9.22에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제시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의 첫 사례
- *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 선진국의 대규모 신규 추가 공적 및 민간자금 공여, 저탄소기술 이전 촉진 등

[ADB, 아세안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F/S 지원(10.26, ADB 홈페이지)]

- ADB는 BIMF(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가 향후 공동으로 추진할 12개 인프라 건설 사업에 기술협력으로 F/S 지원 예정
- 12개 사업은 송전선 사업, 항구 개선, 도로 연결, 도로 개선, 교량 건설 사업으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본 자료는 선진국의 ODA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